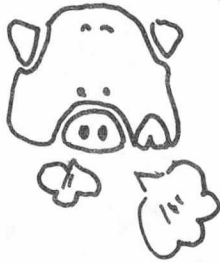


양돈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제언



한 석 현
(한국축산학회 부회장 · 건국대 교수)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되었던 파동과 불황의 진통을 겪으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5년도 한국 식품 수급표에 따르면, 쌀·보리 등 곡류 소비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육류 소비가 급증, 쇠고기는 '85년중 1인당 2.93kg을 소비해 10년 전인 75년의 2.1kg보다 39.5%, 돼지고기는 8.41kg으로 197.2%, 닭고기는 3.08kg으로 96.2%가 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축산물의 수요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축산물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생산 처리와 유통과정이 복잡한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수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육류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양돈업은 최근 사육두수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진통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한 상태하에서 자구책을 위하여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보호무역의 강화,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선진국들의 무역정책, 물질특허, 교육전쟁 등 농산물에까지도 거센 포성없는 전쟁판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축산업이 살길은 과연 무엇일까? 길은 오로지 하나뿐, 국력을 길러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전진해 나가기 위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과학적 기술을 진흥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국가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세계 각국의 양돈 상황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5년을 기점으로 세계를 북미, 남미, 서구, 동구, 소련,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7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각 지

역에 살고 있는 인구와 돼지 사육 두수의 비율은 거의 같으나, 돈육 생산량의 비율은 크게 다르다. 그 원인은 생산성의 양부로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대개 북미, 서구이고 낮은 지역은 남미, 아시아 등이다.

국민 1인당 사육두수의 평균은 0.28두로서 국민 1인당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덴마크의 1.79두, 헝가리 0.91두, 동독·네델란드 0.78두, 캐나다·오스트리아 0.65두, 필리핀 0.15두, 영국 0.14두, 일본 0.09두, 한국 0.08두이다. 또한 국민 1인당 돈육 생산량의 세계 평균은 20.8kg로서 최고는 덴마크로 222.1kg, 다음 헝가리 96.1kg, 네델란드 87.0kg, 동독 71.7kg, 일본 12.6kg, 한국 8.41kg 순이다.

“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생산성은 낮으나 사육밀도가 낮고 국민1인당 생산량도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양적인 발전으로부터 질적인 발전방향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

국민 1인당 두수와 돈육 생산량도 덴마크가 가장 많고 다음 헝가리, 네델란드, 동독, 벨기에 등의 순이다. 아주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 필리핀, 이집트, 일본, 한국, 영국, 이태리 등으로 이중 일본, 영국, 이태리는 수입국이고 기타는 수출입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중공은 국내 사정으로서 돈육이 부족한 상태이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연간 돈육 생산량÷사육두수=생산성, 돼지 사육두수÷인구=사육밀도로 하여 120kg이상은 생산성 특히 양호, 120~100kg은 양호, 100~80kg은 별로 양호치 않음. 80kg 이하는 불량. 또 사육밀도로 보면 0.6두 이상은 특히 많고 0.6~0.4두는 많음, 0.4~0.2두는 보통, 0.2두 미만은 적다고 하는 4 단계로 나누어 비교하여볼 때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일본,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서독, 영국, 미국, 한국(121.3kg) 등 9개국, 낮은 나라는 브라질, 루마니아, 멕시코, 소련 등 10개국이다. 또 사육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 네델란드, 동독, 루마니아이고,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한국(0.07두), 일본, 영국, 필리핀, 이태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양돈업은 생산성은 높으나 사육밀도는 낮고 1인당 생산량도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지난날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할 때 양적인 발전으로부터 질적인 발전 방향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제2도약을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우수한 한국적 종축을 개량·확보·보급하는 일을 서두를 때이다.

외국산 종돈 수입에만 의존하는 종돈의 단순 증식차원을 벗어나 한국의 여건에 알맞고 생산성 높은 종돈을 만들어 보급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종돈능력검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축산법에 의한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사업을

“
**양돈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시장개척과 불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양돈인은 스스로 자조금제도를
 확립해 선진양돈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

확대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종돈관리를 개선 정립해 나가야 한다. 단 행정부서와 양축가들이 충분한 협의하에 민간주도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우선 생산비를 낮추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종돈을 확보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사양기술을 고도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기록 및 경영분석, 그리고 개체별 능력 이외에도 사료섭취, 증체량 등의 분석에 따른 사료의 배합 등을 과학화 시켜야 한다.

물량조절생산과 국제출하규격으로 육성체계가 확립되고 체중 100kg 이상에서 최고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사료비의 절감과 가격결정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 비육수퇴지는 오늘날 거세치 않고 기르기 때문에 수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거세사육하도록 한다.

셋째, 축협이나 민간기업을 통한 계열화사업을 사양,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경영체제로 조기정착시켜야 한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때 생산비절감,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부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선진양돈산업으로 하루속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돈인 스스로 자조금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수많은 양돈가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단합된 힘으로 쉽게 해결해 나가면서 양돈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시키고 시장개척과 불황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육가공의 측면에서 시급한 것은 현재와 같이 육질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유통체계의 개선없이 육가공업의 발전은 기대키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물 거래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검사와 수매규격을 개정해야 한다. 또 축산물에 대한 상품화 기술개발의 혁신을 위하여 도소매기준을 설정하고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며 거래규격 및 표시를 통일하고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거래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 하여금 사양기술을 향상시켜 경제성 높은 축산물을 생산촉진하는 생산지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돼지고기 수출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양돈산업을 오히려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